

[미국-뉴욕]미농무부, 관련 웹사이트 전체 폐쇄 조치

미 농무부가 현재 야기되고 있는 미국 연정부폐쇄로 인해 관련 웹페이지 전부를 폐쇄했다. 이로 인해 농민들과 리포터, 시민들은 기관의 어떠한 정보도 볼 수 없게 되었다. 웹사이트 usda.gov 는 이용자들에게 “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절됨에 따라 웹페이지는 운영되지않습니다. 재정지원이 재개된 후, 해당 페이지의 운영이 될 것이다” 라고 적혀있다.



이같은 농무부의 웹페이지 폐쇄는 연방정부 섯다운에대한 대응을 넘어 대중들에게 섯다운에대한 부당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. 목요일 아침, 미국농무부 홍보담당부서는 이에대한 해명전화에 대답하지않았다.

이에 모든 이용자 들은 미국농무부의 그 어떤 부서 웹사이트에도 들어갈 수 없으며 10 월 1 일 현재, 이전의 모든 정보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.

그 대신, 이용자들을 오바자 정부가 2014 년도 의회 예산지출법안의 통 실패원인을 설명한 백악관 웹사이트를 포함한 세개의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시킨다.

다른 기관들은 웹사이트를 더이상 업데이트하지는 않겠지만 방문자들에게 지금까지 제공하던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열어두겠다고 말했다.

예를들어 미국 상무부는 부서가 닫았다는 포스트를 걸었지만 아직도 방문들에게 섰다운 이전에 올려졌던 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허가했다. 국토안보부의 보건사회복지부의 담당자의 포스트에 따르면 그들의 웹사이트는 적극적인 운영 또는 꾸준한 업데이트가 없을것 이지만 이용자들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.

미국 에너지부 웹사이트 상단에는 “재정지원 과실로 인해, 에너지부의 홈페이지 접속은 가능하지만 정부 자금이 승인나는 2014 년 9 월 30 일(미국정부 회계연도)까지 업데이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.”라고 올라왔다. 미국 국무부의 웹사이트는 아직 운행중이며 메인페이지에는 10 월 2 일에 있었던 주정부 폐쇄에 따른 부서들의 영향을 설명한 대변인의 발언이 링크되어있다.

<저작권자©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& kati.net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>